선민의 삶은 길들지 않는 야생마

(민20:1~13)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므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민의 삶은 길들지 않는 야생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의 삶은 길들지 않는 야생마'
선민이 이 땅에서의 삶을 길들이려고 하면 할수록 삶은 점점 더 흉포한 기질의 야생마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점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이 인생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대니얼 레빈슨이 쓴 책에서 "개인의 인생이 흘러가는데 안정기와 전환기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정기'는 삶의 모든 환경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발전을 향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상태이고 '전환기'는 혼돈과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로, 사업이 안 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린다든지 가족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닥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

자 대니얼 레빈슨이 보는 인생에서 '안정기는 6~7년 정도 지속되면 오래 간 것이라고 하고, 어떠한 인생도 안정기로만 계속 지속될 수가 없고, 반드시 어려움의 시기 전환기가 찾아오는데 이 어려움의 시기가 4~5년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실제 경험으로 보면 안정기가 6~7년 지속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6~7년을 지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정기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금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인생이 안정기로만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레빈슨은 안정기와 전환기를 "인생의 닻과 인생의 돛"으로 이야기하면서 '안정기는 인생이 닻을 내리는 시기이고, 전환기는 인생이 돛을 달고 지금과는 다른 상황으로 전환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선민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닻이 없는 삶이고 안정기가 없어야만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닻이 없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선민의 삶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돛은 있을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방향을 잡는 돛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민의 삶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인데 지금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므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영적 상태가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 무언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영적인 열악한 상태인 믿음 없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계산을 하셔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해 원망을 한 것은 다분히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쑤신 것입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사람이 올라타면 요동을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야생마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야생마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 지상의 삶에서 환경적인 편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등의 기본적인 것들이 확고한 안정된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그 위에 여가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이상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도를 원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인 경험상 이정도의 환경적 편안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선민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의 편안함이 깨어질 때에 느끼는 체감의 정

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가 주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고 환경적 편안함이 깨어져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들의 삶을 들쑤셔서 야생마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생마'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질이 좋고 씩씩한 놈을 구해서 안장을 얹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환경적으로 편안한 상황으로 바꾸고 정착되기를 원하므로 야생마를 비유로 든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의 삶이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쑤셔서 삶의 편안함, 환경적 무탈함을 제거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발생하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 이 사건에서 '여호와와 다퉜다'고 하는데 다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나무나라시면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선민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이라는 것은 환경적 무탈함을 말하는 것이고 '평안과 평강'은 마음의 무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무탈함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무탈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문제는, 그 세상적 무탈함에 우리 마음의 닻을 내려서 안정적인 상태가 주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그 안에 똬리를 틀고 들어앉게 되는데 여러분이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진행되다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느낌이 점점 더 현실적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알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시인하지만, 마음에서 체감되는 상황을 보면 지상의 상황이 편안하고 무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지상의 편안함에 매몰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현실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사실로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은 알지만 내 마음이 그것을 느끼는 것은 현실이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계신 그 하늘나라가 이 세상의 어떤 상황보다도 앞선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의 편안함을 깨버리시면서 계속해서 무탈함을 제거하시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위에 올라탄 것 같은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땅입니다. 한 마디로 환경적 무탈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염려는 환경적 무탈함이 주어졌을 때에 선민들의 마음이 그 편안함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현실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으로 백성들

전체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늘나라에서 데리고 사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함에 매몰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소망적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늘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으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상황이 편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쑤셔서 야생마로 만드신 것입니다. 만나가 주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물이 주어지고, 옷이 해어지지 않고, 고기 먹고 싶을 때에는 고기를 주시고 먹고 살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물을 안 주시고 들쑤셔서 불편함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반응한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명령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바위를 향해서 '바위야 물을 내라'고 하면 될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화가 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바위를 두 번 내리쳤습니다. 그럼에도 이 행동에서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한 번도 구경 못할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럼 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선민인데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의 잘못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지상의 삶을 뛰어 넘으며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은 우리 마음 심장을 꺼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마음을 쏟을 때에는 그 대상이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마음을 줄 때에도 원수가 없으면 내가 기쁠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상황을 믿음의 정의대로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모세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데 그것을 본 모세가 분노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영적인 열악한 상태에 모세의 마음이 접촉을 일으켜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를 두 번 내리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붙은 마음의 반응이 표현된 것인데 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뭐냐? 모세가 믿음을 발동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더라도 자기의 마음 심장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는 마음이 자꾸 이삭에게 갔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므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한 것에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느덧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이 백성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마음이 접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응하고 분노를 일으켰던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를 보이든지 간에 모세의 마음 심장은 하나님께로 가야만 했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있었으면 마음이 기쁨과 평강과 행복감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명령을 받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서는 물이 없어도 좋은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드러났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요16: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처럼 올곧으신 분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 인간들의 잘못이 얼마나 크게 보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시고 하나님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세상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정화는 왜 하셨고, 바리새인들에게 독설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닿아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옮겨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순간이 있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분노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서 일어난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건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백성에게 가 있는 상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을 들춰내시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물이 없어 불평하는 상황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마음을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때에 부모가 선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올바른 믿음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녀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자녀라는 야생마를 편안하게 길들이려고 했던 부모를 자녀로부터 떨어뜨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게 된 것인데 그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이 다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쑤시니까 백성들과 닿아있던 모세의 마음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접촉을 하면서 반응을 한 것으로 믿음 없음이 드러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

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보다 유리한 것은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이 얼마나 당연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할아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먼저 가야 하는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먼저 마음이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껴안았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쑤신 것입니다.
38년 광야시절 동안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물을 안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삭을 껴안을 수도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껴안은 모세와 아론의 믿음을 들춰내시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선민에게 설교하시기 위하여, 불평하도록 들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길들지 않은 야생마로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으로 그 백성들을 좋은 의도로 길들이려고 했을지라도 마음에 먼저 끌어들이면 믿음이 중단되어 버리고 만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편안한 상태를 원하는 한, 삶은 끊임없이 야생마가 될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의 환경적 무탈함을 '먹고 살 것 걱정 없고, 입고 살 것 걱정 없고, 노후대책 걱정 없고, 자녀들 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얻고 결혼도 잘 하고...'라고 원하는 한 우리 삶의 야생마적 기질은 불쑥불쑥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민이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늘 하늘에 가 있어야 합니다. 편안하면 이 세상에 매몰되어 버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느낌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맙니다. 사도들과 순교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나라가 나를 죽이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앞선 현실이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한 우선적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게 선민입니다. 삶을 야생마로 만들어서 엉덩이가 으스러질 정도가 되어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에 매달려서 야생마가 요동을 칠 때에 그곳에 엉덩이를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라는 야생마에 엉덩이를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삶이라는 야생마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뜬다'는 것이고 '마음의 접촉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생마에 접촉하지 않을 때에는 야생마가 날뛰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야생마인 삶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싹 포개져 있으니 야생마는 자기 위에 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는 야생마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가시는 도중에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덩이가 살짝 닿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돌본다는 야생마의 삶에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가 닿았던 것이고 그 야생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쑤셔서 떨쳐낸 것인데, 화가 나서 한 것이 모세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백성에게 마음을 주느라고 내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믿음이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고 가나안 복지인 기쁨과 행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길들여서 기뻐하려고 하는 한 기쁨과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생마적 기질로 충동시키시는 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야생마에서 엉덩이를 떼고 마음이 하늘에 매달리고, 지금 저 하늘이 내 기업이고 내 몫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삶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아서, 다시는 우리의 삶이 요동질치지 않도록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늘에 매달려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